

“통합특별시 일꾼 내 손으로”...사전투표소 복적

“첫 통합특별시 기반 다질 일꾼은 내 손으로 뽑아야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지역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새벽부터 이어졌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봉동사전투표소는 투표 개시 20여분을 앞두고 운동복 차림의 시민과 지팡이를 짚은 80대 노부부, 출근길 직장인 등 25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리며 금세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지난 대선 이후 생애 두 번째 투표라는 수험생 김모(20)씨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투표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본투표 당일 여행이나 업무 일정이 있는 시민들도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여수와 순천, 담양 등 전남 지역은 물론 경북과 경기 등 전국 각지의 관외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다.

신원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은 최대 7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아들이고 “아따 많기도 하다”며 후보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다.

투표 시작 20분 전부터 10~20명 긴 대기줄도 출근길 직장인·노부부·관외유권자 발길 이어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봉동사전투표소 앞에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온 유권자들이 줄을 서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연상연하 김모(45)씨 부부는 “행정통합이 다소 급하게 이뤄진 느낌도 있다”면서도 “첫 통합특별시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 농성2동 공

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오전 6시 정각 “사전투표 개시” 안내가 나오자 대기하던 시민들은 차례로 투표장 안으로 들어섰다.

서구청장과 특별시의원 선거(서구

제1선거구)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일부 지역은 투표용지가 7장에서 5장으로 줄어든 탓에 “왜 투표용지가 적으냐”며 묻는 시민들도 있었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생각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잘 이끌 일꾼이 선출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서구 주민 박모(58)씨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서민 삶을 챙기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72·여)씨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도 갈등과 반목보다 지역 발전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북구 주민 유모(41)씨는 “단순히 예산을 더 받기 위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당선인들이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시대 변화 대응” 광산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부터 예술까지 분야 전문가 초청



광산구가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교양강좌인 '광산아카데미'를 추진한다.

광산아카데미는 광산구가 지난 2023년부터 인공지능(AI)·미래사회·경제·인문 등 지역 현안을 다루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광산구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민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첫 강연은 18일 '격변의 시대,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이후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호모레쿠스스, 거부하는 인간: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는다'(7월 16일),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코스피 10000시대, 한국 경제전망과 현명한 투자전략'(9월 11일), 김현욱 예술감독의 '음악으로 쓴 광주정신'(10월 15일),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의 '미디어아트와 나'(11월 19일) 등 다양한 강연이 이어진다.

광산구 평생학습포털인 '배우랑개'(edu.gwangsan.go.kr)에서 강좌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강좌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도기 기자

광주교육청 청렴문화 이끈다 시교육청 '청렴리더' 위촉

광주시교육청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29일 분청 중회의실에서 '청렴리더' 3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리더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교원,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와 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렴리더들은 현장 중심 반부패·청렴정책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 말까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정책 모니터링, 부패취약 분야 개선과제 발굴, 청렴 캠페인 참여 등 분청과 학교, 기관 간 청렴정책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실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기관 구성원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책 추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연계형 청렴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청렴리더가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6월부터 '안심노무사' 시행...직장 갑질 예방

익명 기반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보호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안심노무사는 갑질 피해자가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명 기반의 상담·신고 지원 제도다.

교육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추천한 안심직 노무사와 김사현 노무사를 6월1일자로 안심노무사로 위촉했다.

노무사는 신원 노출이 우려돼 갑질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갑질 상담과 피해자 보호 상담, 사실관계 정리, 신고서 작성 지원, 대리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피해

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과 신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최승복 광주교육감 권한대행은 “안심노무사 제도는 피해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라며 “갑질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 섬지역 AI·SW 교육 '섬드림 캠프' 참여학교 모집

오는 4일까지 도서 지역 초·중학교·작은 학교 신청 접수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리적 여건으로 디지털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섬 지역 청소년을 위한 '2026년 찾아가는 AI·SW 섬드림 캠프' 참여 학교를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섬드림 캠프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가 부족한 도서 지역의 초·중학교와 작은 학교를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중심의 맞춤형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첫째해였던 지난해에는 도서 지역과 작은 학교 54개 학급, 학생 647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참여 학생과

교사들은 최신 생생형 AI와 데이터 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했다. 이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 섬드림 캠프는 9월부터 12월 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과정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기초 ▲AI 데이터 활용 ▲생생형 AI 체험 등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김 호 기자

전남대 화순캠퍼스 학생 10여명 식중독 의심 증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캠퍼스에서 학생 1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 중이다.

29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기속사 학생 10여명이 설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고, 대부분 증상이 호전 상태로 알려졌다.

화순군보건소 기초 조사에서 병원 식당을 이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식당과 음식점을 점검 이력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검체를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구속기간 연장 보완 수사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스토킹과 성폭력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장윤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23)씨가 1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 여성이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도기 기자

전남경찰, 두바퀴차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두바퀴차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여름철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자전거·PM 사고 사망자 37명 중 17명(46%)이 여름철(6-8월)에 발생했다. 이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37.8%에 그쳤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보

호구역, 변화가 등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픽시자전거 위험운행, PM 무단히 운전·정원 초과 운행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기 등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제도 활동도 병행한다.

/김 호 기자

북구 '2026 희망아카데미' 운영

송길영·문형배·이홍렬·유성호 등 4인 명사 강연

북구는 '2026년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강연이 펼쳐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올해 강연자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코디디언 이홍렬 ▲법의학 교수 유성호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11월까지 북구청과 북구 문화센터에서 총 4회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6월 16일 송길영 작가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올해 희망아카데미의 포문을 연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소규모 조직이 경쟁력을 갖는 '경량문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9월 2일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저서 '호의에 대하여'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호의를 실천하는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10월 13일에는 방송인 이홍렬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웃음이 주는 긍정적인 힘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유성호 교수는 '죽음에서 배우는 삶의 가치'라는 주제로 11월 5일 강연에 나선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북구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170)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기 기자

서구, 노인일자리 참여자 정신건강 관리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4000여명 대상 치매조기검진

서구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까지 지원한다. 서구는 6월부터 9월까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공익활동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10곳과 검진 일정을 협의해 문진식 인지선별검사(CIST)를 실시하고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이해·판단력 등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심리검사 등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협약병원 갑발검사까지 연계해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 과정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도 제공된다.

또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한빛원전 6호기 발전 재개...오늘 전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6호기(가압경수로형·1000MW급)가 제16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2분부터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상 출력 도달은 1일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 6호기는 지난 2월 7일부터 원전연료 교체, 원자로냉각재펌프

점검, 원자로 고온관 온도계측기 노출 보수 등을 통해 설비의 종합적 안전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영사중민 기자